“동국대 변화 중심엔 ‘건학위’가 있습니다”

윤성이 총장, 11월 29일 재학생들과 소통 간담회

4년 성과 되짚으며 소통 나서
학생들 교육환경 개선 등 질의

충무로영상센터 개발 규제 풀고
학교 수익 모델 개편 초석 다져
소통공감 홈페이지서 민원 해결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가 2년 연속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9위를 했습니다. 이제 동국대는 명문대학 반열에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는 ‘제2건학’을 위해 발족한 건학위원회의 원력과 지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11월 29일 교내 명진관 명진 라운지에서 열린 학생들과의 소통 간담회에서 4년간의 소회를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학생들과 최근 학교 변화와 성과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학교 홍보대사 ‘동감’ △리더십 단체 ‘108리더스’ △학생모니터링단 ‘동화’ △학생부전형 알리미 ‘드리머’ △교내 교육방송국 ‘DUBS’ △교내 신문사 ‘동대신문’ △영자신문 ‘동국포스트’ 등 소속 단체 학생 11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간담회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동국대가 최근 보여준 발전과 성과들이 지난해 4월 발족한 ‘건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졌음을 분명히 하고, “고문 자승 스님이 말씀하신 원력인 ‘등록금 걱정,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장학제도 신설, 전국 대학 최대 규모 취업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학교 발전과 문제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108리더스 소속 장인혁 학생은 “학교 취업박람회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선배들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면서 “이 같은 규모로 지속적으로 열렸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11월 29일 교내 명진관 명진 라운지에서 교내 단체 소속 학생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윤 총장은 “대학 본부와 단과대학이 하나의 목표로 노력한 결과”라면서도 “산업 · 직군별 보완들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 관련 기초 교육들을 9월에 열리는 박람회에 앞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드리머 소속 김윤성 학생은 대학평가에서 평판도 순위 제고를 위한 학교의 노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동국대가 개발해 특허를 낸 IR시스템을 소개하고 “대외 평판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대학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재무구조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충무로 영상센터의 고도제한 규제를 마침내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부지 개발을 통해 연300~400억 원의 부동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수익 모델 개발로 재무구조가 안정화되면 대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예산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화 소속 왕정은 학생은 일산바이오메디컬캠퍼스(BMC)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속 캠퍼스 학생들을 타겟팅해 역량을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다.

“‘BMC는 서자냐’는 학생의 지적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눈물을 보인 윤 총장은 “학내 역량개발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 관련 교육과 자체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아직 시간이 걸릴 일이지만 지금 의대와 한의대가 캠퍼스에 있고, 여기에 간호대, 수의대, 치대를 순차적으로 유치하려 한다. 이를 통해 BMC를 경기도를 대표하는 의료크러스트로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엑셀, 파워포인트 등과 같은 기초 직무 역량 교육을 공통 필수 교양 수업으로 배정할 수 없는가’ ‘교내 교육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등을 질의했으며, 윤 총장은 하나하나 성실히 답했다.

윤 총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학교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며 소통 공감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교내 구성원 간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소통 공감 홈페이지가 문제를 제기하고 논쟁하며 배우는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총장으로서 학생들이 더욱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일류 동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본지 ‘문화, 불교를 입다’ 불교기자상 기획보도상

오는 12월 12일 시상식

한국불교기자협회는 11월 29일 2022년 한국불교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서재영)를 열고 기획보도 부문에 신성민 · 임은호 현대불교신문사 기자의 봉축기획 ‘문화, 불교를 입다’를 선정했다.

대상에는 정주연 법보신문 기자의 심층탐사보도 ‘서울시와 가톨릭의 도 넘은 종교역사공정’, 취재보도부문에는 윤호섭 BTN불교TV 기자의 ‘캠퍼스 포교, 이젠 바꾸자’가 각각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K-컬쳐의 바탕에 불교가 있으며 그 확장 가능성을 조명한 신성민 · 임은호 기자의 ‘문화, 불교를 입다’는 시기적절한 아이템이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한국불교기자상 심사는 서재영 성균관대 교수,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 교수가 맡았다.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2일 오후 6시 조계사 관음전에서 열릴 예정이며, 시상식 이후에는 한국불교기자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노덕현 기자

“젊은 불교 이끌어 불교 미래 열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교구장 능원 스님 취임식

11월 29일 용인 호국선봉사서
능원 스님 “군불자 배가 노력”
군승의날 기념법회 함께 봉행


군종특별교구는 11월 29일 용인 호국선봉사에서 제6대 교구장 능원 스님 취임법회를 개최했다.

“군불교는 젊은 불교 이끌어 불교 미래 열어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군종교구가 내딛는 걸음이 불교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제6대 군종교구장 능원 스님 취임과 함께 새로운 군불교 활성화를 서원했다. 군종특별교구는 11월 29일 용인 호국선봉사에서 제6대 교구장 능원 스님 취임법회 및 군승파송 54주년 기념 군승의날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무원장 진우 스님으로부터 군종교구기를 건네 받은 능원 스님은 취임사에서 “불교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직분을 수행해 나가겠다”며 “종단과 더 많은 소통과 협력 속에 발전해 나가겠다. 군불자들이 종단에 깊은 소속감을 느끼며 신행 정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현재 우리는 종교인구의 감소, 도덕과 윤리의 몰락, 배금주의의 확산 속에 인성이 무너지고 삶의 기준과 방향이 흔들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다. 불교를 널리 알리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있어 많은 난관이 되고 있다. 6대 교구장 능원 스님을 중심으로 열정과 원력으로 가득찬 군불교의 모습은 앞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고 설했다.

원로의원 자광 스님은 “종단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논산훈련소와 각군 사관학교가 길목이다. 적극적인 포교가 있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취임법회 및 군승의날 기념법회서는 일선 군승법사들이 계룡대 호국 홍제사 신축불사기금으로 7320만 원을 후원했다. 교구장 능원 스님이 1억 원을 희사했으며, 육군 교육사령부 호국자운사에서 1000만 원, 육군 제2보급단 호국 금련사에서 1000만 원, 국방부 원광사에서 1000만 원 등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보리가람농업대, 올해 졸업생 90명 배출

동행, 11월 25일 졸업식
총330명 현지 인재 배출



개교 6주년을 맞은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 네 번째 졸업식을 갖고 90명의 농업 인재를 배출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은 11월 25일 탄자니아 현지에서 졸업식을 진행했다.〈사진〉 올해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졸업생은 90명이다. 현재까지 배출된 330여 명의 졸업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탄자니아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활동 중이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특히 탄자니아 유일의 세종학당(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內)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국어로 삼귀의와 홀로 아리랑, 졸업식 노래를 불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수석으로 졸업한 오메가 세비야지(Omega Seveyage)는 “지난 3년간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과 멀리서 응원해준 한국 불교 그리고 불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졸업하고 지금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오빠(알파 세비야지 Alpha Seveyage)처럼 내게도 한국유학의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알파 세비야지는 지난해 11월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을 졸업하고 아름다운동행의 초청으로 한국으로 와서 현재 동국대학교 편입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 중이다.

개교 6년을 맞는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은 올해 축산학과를 신규 개설해 일반 농업학과, 원예학과와 함께 세 개 학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또 정식 운영에 들어간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은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생들뿐 아니라 인근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한국 문화와 불교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에서는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운영비 모금, 장학금 모금 등을 진행하고 있다. (02)737-9595

임은호 기자

운문사승가대 25회 동문 승려복지기금 3천만원

운문사승가대학 제25회 동문회 임원진 스님들은 11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승려복지기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동문회장 지호 스님은 “종단이 발전하고 대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동문회도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기스님들이 합심, 소중한 기금을 전달해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동문회장 지호 스님(안흥사 주지)을 비롯해 부회장 진명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총무 대훈 스님(법기암 주지) 등이 참석했다.

임은호 기자



꿈이 이루어지는 도량 함안 마애사

천년의 물 흐름 속 영험한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청룡대불

지성으로 기도드리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는 기도도량입니다

미리 부처님 친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어 발원하는 모든 일들
원만성취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완공 예정
2024년 1월 1일 갑진년(청룡의 해) 새해 점안법회 예정
055-585-5114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마 애 사


함안 마애사 청룡대불